

4 뉴스

역사에서 건져올린 대학의 미래

유경민 기자 gmni0313@knu.ac.kr

경희기록원 남기원 기록연구사가『대학의 역사』를 펴냈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대학의 역사』는 그 변화가 가져올 대학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을 대학의 '역사'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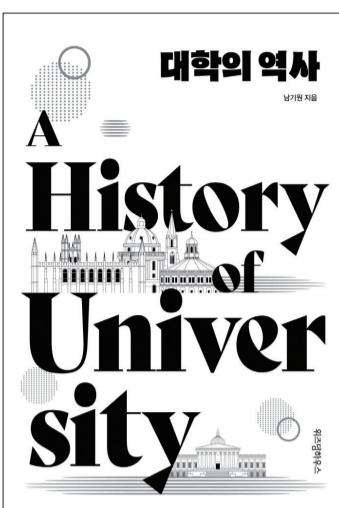
대학은 유지되고 있는 오래된 사회제도 중 하나다. 대학이 중세 유럽에서 출현해 존속하고 확산한 이유는 사회가 요청하는 소명을 충족 시켜 왔기 때문이다. 17~18세기 대학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절대주의 군주들의 요구를 충족했다. 20세

기 대학에서 생산한 연구 결과가 전쟁의 수단, 경제 성장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대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학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위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진단을 내리지만, 가지각색이고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저자는 "대학에 대한 논의는 넘쳐나지만 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다"며 "대학의 위기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대학의 역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 미래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세의 대학탄생에서 현재 자본의 지배에 놓인 대학까지 살펴본다.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자들로부터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모임이 발생했고, 점차 체계를 갖춰 최초의 중세 대학이 됐다. 중세부터 대학은 이론 교육 중심이었다. 19세기 이전의 대학은 유용성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고 사회가 대학에 부여한 역할을 축소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인식이 변한다. 전쟁 이후 대학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인 인적 자본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됐고 고등교육의 기회는 대중에게까지 주어졌다.

대중이 고등교육을 받으며 대학은 사회로부터 멀어질 수 없었다.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신자유주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요구는 확대됐다. 정부는 공공에 대한 지원을 감축했고, 대학은 대상 중



남기원, 『대학의 역사』

하나였다. 대학은 감축된 기금의 보충을 위해 전임교원 수를 줄이고 시간강사 채용을 늘렸다. 수업료 역시 인상했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 등 돌리게 했고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후 대학은 기업의 기금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저자는 대학이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고, 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고 본다. 대학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발전한다는 주장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학문 생태계가 왜곡된다는 비판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시장의 경쟁이다. 경쟁으로 대학은 평가에서 좋은 순위를 획득하고 기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경쟁하되 학문을 공공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대학이 전체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끝으로 저자는 "충돌하는 주장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학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며 "이 책이 대학과 관련하여 넘쳐나는 주장을 가운데 독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디지털 공유대학 본격 추진

김경민 기자 elude12@knu.ac.kr
박소은 기자 unaos@knu.ac.kr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공유대학) 출범식이 지난 28일 단국대학교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교육부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학교는 김우식 국제부총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최근 공유대학 사업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공유대학 사업은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해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 국책 사업이다. 6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우리학교는 중앙대 등 5개 교와 함께 건국대가 주관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공유대학 사업 분야 중 실감미디어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실감미디어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실현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등의 기반 기술과 메타버스 등의 활용 기술을 통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실감미디어 컨소시엄 내 대학이 각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가운데 VR/AR 기술에 강점을 가진 우리학교는 실감미디어 기술분야 교육을 담당하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출범식이 지난 28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렸다.

(사진=단국대 제공)

을 주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공유대학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연간 15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대학 간 공유체계 구축과 실감미디어 실습 공간 조성 등 수업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2학기부터 일부 교과목에 프로젝트 공유 형태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공유대학 사업은 컨소시엄 대학 간 커리큘럼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학사제도와 지원도 진행된다. 타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해 우리

학교는 ▲방학 중 집중 이수제 ▲계절학기 학점 제한 완화 ▲학점교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3~6개의 과목을 듣고 소규모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이크

로디그리 ▲공동학위 수여 ▲방중대학기 운영 등 새로운 제도도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전공과 공유대학 학위과정이 합쳐진 연계 전공 및 융합 전공 형태의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 간 본격적인 수업 공동운영이 시작되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도 공유된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타 대학 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유대학 학생증 등의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실감미디어 역량 개발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실습 강의 공간인 X-Space는 컨소시엄 내 모든 대학에 구축돼 학생들은 소속과 상관없이 다른 대학에서도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는 현재

국제캠퍼스 우정원 지하에 공유 수업을 위한 MR 센터와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다. MR 센터에는 모션 캡처 장치와 VR 모션 플랫폼 등 관련 장비도 마련돼 산학협력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유대학 사업단장 전석희 교수는 "본 사업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실감미디어 분야 교과과정 선택권의 확대"라며 "실감미디어 예술, 게임 관련 전문 교과목 등 우리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영역들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고품질의 실감미디어 교육을 기반으로 VR/AR 잘하는 학생을 만들고, 경희대 또한 실감 미디어의 중심 허브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여 대안기구 TF 발족

이현정 기자 pr3417@kn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총여학생회(총여) 대안기구 신설을 위한 TF팀 모집을 완료했다. 지난 5일부터 7일간 모집한 대안기구 TF팀은 서울캠 총여 해산이 결정된 지 15일 만에 확정됐다. 서울캠 총학은 "대안기구 신설 준비 TF팀에서 경희대학교의 인권 보장, 성평등을 담당할 대안기구를 신설해 안전한 캠퍼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개간담회와 학생참여형 대안기구 TF팀 중 어떤 형태의 대안기구 회의체를 채택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남 회장은 "대안기구 TF팀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깊은 논의가 가능한 회의체"라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총여는 1987년 출범돼 35년 만에 최종 해산이 결정됐다. 앞으로 총여 대안기구 TF팀을 중심으로 4년간 월위 상태였던 총여의 공백을 채울 대안기구 신설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